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지난 해 우연히 유럽 여행의 기회가 주어져, 유럽의 고색 찬연한 건축물 들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린 적이 있다. 동양의 아름다움은 주로 자연 그대로에서 비롯되지만, 서양의 아름다움은 돌덩이의 문화가 빚어내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하다고 누군가가 그랬지만, 그런 대로 유럽건축물의 아름다움은 감동을 자아내 기엔 충분하였다.

유럽의 여러 가지 유명한 상징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브뤼셀 하면 떠오르는 조그마한 ‘오줌누는 소년 (Mammeken-Pis)’ 상은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제공하였다. 그토록 유명한 상징물이라면, 로마의 베드로 광장 같은 커다란 광장의 한 가운데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무참히 깨뜨린 채 (자칫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조그만 골목 안, 한 쪽 벽면에 수줍은 듯 ‘오줌을 누고 있는 소년’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을 가져보았다. 특별히 아름답다고 할 수도 없는 이 조그만 동상이 무엇 때문에 브뤼셀, 더 나아가 벨기에의 상징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브뤼셀에는 그밖에도 유명한 상징물이 많다. 가령, 빅토르 위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을 한 바 있다던 그랑플라스(Grand Place) 광장도 그렇고, “고딕예술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는 생 미셀 성당 (Cathedrale St-Michel)도 그렇다. 더구나, 생 미셀 성당은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이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이 벨기에의 국가적 대성당으로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동상이 우리에게 더 친숙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구석진 곳에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60 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 초라한 동상이야말로 “브뤼셀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브뤼셀 시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가?

1619년 제롬 뒤케노스에 의하여 제작되어진 이 청동 상은 몇 번이나 침략자들에 의한 약탈을 겪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루이 15세는 당시 침략을 사죄하는 뜻으로 이 동상에 화려한 옷을 제작하여 선물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이유로 해서, 이후 이 동상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 온 의상으로 인해 세계최고의 옷 부자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방문에는 의례적으로 그 나라의 전통의상이 입혀지는 전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오줌누는 소년’이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흔했던 식수용 분수 중 하나였던, 별거벗은 소년의 모습이 브뤼셀의 명물은 물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된 배경에 대해 생각하면서, 바로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으며, 바로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소중한 보물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동상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아무튼, 그랑플라스 광장 주위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 보다 골목 안에 초라하게 붙어 있는 그 소년의 동상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유럽의 모든 건축물들은 나름대로 이런 식의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록 주마간산 (走馬看山)식으로 훑어 본 유럽이라, 그 세부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로 아름다운 성당과 중세의 성채들을 중심으로 둘러보면서 유럽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어느 책에선가 읽은 내용이 떠올랐다. 즉,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 르네상스 시대를 즈음한 헬레니즘, 그리고, 계몽주의 사조에서 비롯되는 근대 과학과 근대정치 사상 등이 그것이다.

유럽여행을 하면서, 유럽문화의 뿌리와 흐름이라는 네 가지 사과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생각해보았다. 아

담과 예화가 하느님의 계율을 어기고 맛보았기 때문에 낙원을 쫓겨나게 했던 금단의 나무열매가 그런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되는 최초의 사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곧 헤브라이즘을 의미한다. 두 번째의 사과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말쑥과 다툼의 여신 에리닉스가 던진 황금의 사과이다. 즉,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하여 결국 트로이전쟁의 도화선이 된 황금의 사과는 헬레니즘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만유인력을 낳게 한 뉴턴의 사과와, 루시니의 오페라로 유명해진 빌헬름 텔의 사과는 각각 근대 과학과 근대 정치사상의 근원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사과나무라도 역사상의 인과관계와 그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한 해가 시작되지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 해마다 새 해 새 아침엔 늘,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비록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결심한 대로 실행한 것에 비해, 다짐했던 결심 중에 이루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도 새해는 새해이니 또 다시 잘 살아야겠노라, 열심히 살아보리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힘찬 다짐을 새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도 나에게도 꼭 같이 주어지는 1년 365일이란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일을 하였구나 하고 생각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저 그런 하루들이 모여 1년이란 시간만 강물 흐르듯 흘러만 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되돌아보면 내가 보낸 시간도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또 다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게는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보내어야 할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그나마 큰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더 보람있게 살아보리라 하는 각오가 더 새로워지게 된다.

누군가 말했다. 인생은 앞장서 달려가는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 여정보다 앞으로 나아 가야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내야 할 시간들이 훨씬 더 소중한다고 여겨진다. 그러기에 어제는 지나간 역사(history)이고, 내일은 신비(mystery)이나 오늘 현재(present)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present)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유럽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일의 신비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어제는 흘러간 과거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인 오늘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내일엔 신비의 무지개가 각자 우리 모두 앞에 찬란히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런 행복의 무지개, 성취의 무지개는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비록 지금껏 가진 것 별로 없고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성과조차 별로 가져보지 못한 나 같은 소시민에게는 ‘오늘’이 바로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모르겠다. 흘러간 ‘어제’야 어찌 되었던 건 오늘 우리는 꼭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크나큰 ‘선물’이었음을 회상할 날이 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